

복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2/4분기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은 해상포워딩단과반을 비롯한 5개 과정으로 각 1회씩 5회 실시될 예정이다.

2001년도 2/4분기 연수교육은 4월 2일부터 시작된 항공포워딩기초반 교육을 필두로 4월 23일 해상포워딩단과반, 5월 2일 복합운송중급반, 5월 28일 항공포워딩단과반, 6월 11일 해상포워딩기초반 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1/4분기에는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제13기 해상포워딩단과반, 2월 19일 항공포워딩단과반 과정에 각각 54명과 51명이 수강하였고, 제38기 해상포워딩기초반(3.5~23) 교육에는 52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복합운송업체 재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사의 수요가 많은 신규 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협회를 비롯한 타 교육기관에서도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 취업희망자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회원사의 수요에 응하고, 미취업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체 양성훈련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3일 2001년도 제1차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세부 교과목을 확정된 후 하반기에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1년도 2/4분기 교육훈련과정 현황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원)	지원금액(고용보험)		비고
				우선지원	대규모	
항공포워딩기초반	4. 2~20	56	170,000	138,830	123,400	종합반
해상포워딩단과반	4. 23~27	20	60,000	49,010	43,560	
복합운송중급반	5. 2~25	72	220,000	184,680	164,160	종합반
항공포워딩단과반	5.28~6.1	20	60,000	49,010	43,560	
해상포워딩기초반	6. 11~29	60	180,000	147,000	130,660	종합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종업원수 150인 미만인 기업임.



우리 협회는 부산지역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을 위해 오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무역회관에서 해상포워딩 부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상포워딩 부산교육과정은 무역실무(6시간)를 비롯하여 복합운송개론(6), Forwarding Operation(12시간) 및 선하증권작성(6시간) 등 4과목을 30시

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교육훈련비는 12만원이다.

이 과정은 현재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 신청중이며, 직능과정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훈련비의 70%(우선지원대상) 이상을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FMC 등록업무 대행

미국행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 등록업무를 협회에서 대행한다.

지난 1999년 5월 1일자로 개정 발효된 미국 해운개혁법(US Shipping Reform Act 1998)의 규정에 따라 미국행 화물을 취급하는 미국국적 이외의 복합운송업체(NVOCC)는 FMC의 면허취득, 15만달러의 재정책임보증(bond), 자사(自社)의 Tariff 공개 및 법정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

해야 하는데, 회원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Bond 및 Tariff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미국의 Intercargo Insurance 회사와 협의하여 Bond의 경우 기존에 화물배상책임보험 Session I (법률상배상책임)에 가입한 업체는 회사의 재정평가에 따라 약 3,000~7,500달러의 비용으로 15만달러의 재정책임보증에 가입하게 되고, Tariff On-Line 등록은 Distribution Publication Inc.사를 통해 650달러의 비용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주단체(SA), 미주·구주항로 본격 운영키로 KASA에 이어 KESA도 출범

해상운송인(선박회사)과의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체결에 따른 보다 유리한 운임을 화주에게 제공키 위해 결성된 국내복합운송업체의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북미항로 및 구주항로에도 결성돼 본격 운영된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5월에 결성된 북미항로의 KASA(Korea-America Shippers' Association)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따라 구주항로에도 KESA(Korea-Europe Shippers' Association)를 결성하여 양 항로에 화주단체가 활동하게 된다.

구주항로의 화주단체(KESA)는 지난 3월 9일과 29일에 전체 참여사 회의를 개최하여 국적선사 1개사 및

외국적선사 2개사를 S/A 파트너로 선정하고, KESA 추진위원장으로 남영해운 허남임 사장을 선임했다.

한편 북미항로의 제2기 KASA(위원장 정호성-아트라스해운 사장)는 34개 회원사가 참여하게 되며, S/C 체결 대상선사는 1개의 국적선사 및 1~4개사의 외국적선사이다.

제1기 KASA는 지난해 총 6,234FEU를 선적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해 10월 일본복합운송협회(JIFFA)가 대표단을 우리 협회에 파견하여 S/A제도의 도입에 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홍콩·대만 등지에서도 이 제도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회원사 임직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퇴근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버스사업자를 공개 입찰에 의해 신정관광주식회사를 선정하여 출퇴근 버스 운행 외에도 인천공항-김포공항간(10:00, 13:30, 16:00), 김포공항-인천공항간(14:30) 차량

운행,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A,B,C동간 2대의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용료도 당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월 12만 5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출근은 오전 6시부터이며 퇴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된다.

출근버스 장소 및 시간

구 분	출발장소 및 시간	경 유 지	도착장소
1 구간	신도림역(06:00, 06:30, 07:00, 07:10)	송정역	화물터미널내
2 구간	원종동(06:00, 06:30, 07:0)	고강동, 화곡역, 발산동(농협), 발산역, 송정역	"
3 구간	신월동 328번종점(06:00, 06:30, 07:00)	신정사거리, 화곡전화국, 송정역	"
4 구간	오목교(06:00, 06:30, 07:00)	목동 4거리, 통합병원삼거리, 가양APT, 방화 4거리	"
5 구간	송정역(06:00 ~ 08:20 - 수시출발)	-	"

※ 퇴근버스 : 18:00~22:00(주말 13:00~22:00)

‘회장선출’ 규정 신설 등 정관개정

회장의 선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이 날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8일 개최된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정

관개정안이 의결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협회 정관은 회장의 선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게 됐다.

<p>제14조의2(회장의 선출) (신설)</p>	<p>제14조의2(회장의 선출)회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 대표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2.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협회 집행부에 회장 입후보신청서와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협회 집행부는 총회개최 50일 이전에 입후보 등록 안내를 하여야 하며, 15일 이전에 후보등록자를 회원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는 회원사에 공문으로 한다. 4.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각1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5.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참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단일후보일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협회 공항사무소 영종도로 이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협회 공항사무소도 영종도로 이전했다.

지난 3월 28일 이전한 협회 영종도 사무소는 A 운송대리점동 32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출입증 발급신청 등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회

원사를 지원하게 된다.

이전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2 A운
송대리점동 321호

전화 : (032)742-9300/2, 전송 : (032)742-9400

'화물취급관련 용역代價 제대로 징수해야'

대다수 복합운송업체들은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서비스 차지(charge)를 화주로부터 징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복운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수출입항공화물 취급에 따른 물류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업체들이 각종 Service Charge를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화주의 반발 때문에 전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각종 Charge는 수출항공화

물의 경우 Handling Charge(EDI Fee 포함), AWB 작성수수료, 위험품 취급수수료, 입체지불 수수료, Pick-up Service Charge, Airport Charge 등이며 수입항공화물의 경우 Handling Charge(EDI Fee 포함), 착지불 수수료(Charge Collect Fee) 등이다.

반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화물의 경우 RFC (Ready for Carriage) Charge를 비롯하여 운송료(또는 보세운송료), 기타 비용 등이며, 수입화물의 경우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소재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협회에서 이러한 서비스 차지를 정하여 부과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합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정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자율 부과하여야 한다.

건교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와 건설통관부는 지난 4월 11일 건교부 회의실에서 통관취급법인제도 개선 등 복합운송업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을 비롯한 3명, 협회 김정민 회장을 비롯한 7명이 참

석하여 통관취급법인제도, 협회 명칭 개칭,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 포워더 전용창고, 기타 복합운송업계의 현안사항 개선 등에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앞으로 이같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